



### 교회세습, 하지 맙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기획/  
백덕만 책임집필 / 흥성사

흙수저에, 무수저까지 어디하나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세상이다. 소망은 바라지도 않는다. 비빌 언덕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대를 잇는 수저라니!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한 분이 교회로 들어왔다. 한 권사님이 다른일을 하던 같이 있는 청년 중 자신의 딸이 아닌 청년을 부른다. 그리고는 담임목사님에게 안내하라신다. 권사인 자신의 딸은 그런 것을 못하니 집사 딸이 하란다. 이런 예도 있다. 아주 특별한 부조금이 있단다. 부모의 교회 직분에 따라 무려 5배가 넘는 금액 차이를 둔단다. 이상한가? 교회도 세습하는데 교회 직분이라고 다를까.

### 교회, 너마저

과거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문화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어둠과 달랐고 적어도 교회는 믿을만한 곳이었으며 기독교인은 사랑이 넘쳐 누구도 품을 수 있었다. 세상은 그런 교회에 세상과는 다른 다름을 기대 했고 교회는 교육도, 복지도, 문화도 아낌없이 세상에게 주었다.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달랐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교회 안의 치리는 사라지고 타협하다가 우리 식구, '우리교회' 꺼안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뿌려져야 제 맛인데 모이고 고이고 나니 소망이 되기는커녕 '지들끼리 축제'가 되었다.

### 사유화에 반대하라

한국 사회의 독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협동을 일컬어 '가래질'이라 이어령 선생은 말한다. 가래질은 자기 쪽으로 힘껏 당겨야 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조하는 자기중심적 협동이라 했다. 서로가 맞지 않으면 깨지는 협력이라 한국문화에서 감시와 견제는 필수다. 문제는 울타리 안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협력이 잘되지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불친절하고 공공도덕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우리' 중심 문화이다. '우리' 문화의 가족 중심 이기주의 극치가 '세습'이라는 모양으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뤄지고 있고, '우리교회'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는, 교회가 한낱 개인의 소유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교회에 무엇을 소망하고, 속하고 싶고, 닦고 풀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눈앞의 교회 모습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오히려 눈앞의 모습을 지키려다 잃어버린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며, 반추하지 않은 오늘은 습관으로 굳어진 오랜 가족부대다.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고, 악의 모습은 끝까지 저항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과연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것인지 물어야겠다. 교회세습, 하지 맙시다.

### 책 속의 한 줄

칼빈은 내적소명에 대해 “우리가 직책을 받은 것은 야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마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_p.141